

일주문

교육원 연수국장 임명
광주 불교사 주지 가섭 스님은 6월 7일 조계종 교육원 연수국장에 임명됐다.

길상사 불교입문 강좌
길상사 주지 덕은 스님은 6월 8일~8월 17일까지 매주 수요일 길상사에서 제10기 불교입문 강좌를 개최한다.

불교상담개발원 상담워크숍
불교상담개발원 원장 담교 스님은 6월 25~26일 목동 국제센터에서 불교상담 워크숍을 개최한다.

불레협 제47회 여름불교학교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장 도경 스님은 6월 19일 서울 불교방송 3층에서 제47회 여름불교학교 지도자 강습회를 개최한다.

선진구 불화 정도원장 등단
선진구 불화 정도원장은 6월 1일 발행된 2011 <한국현대사문학> 여름 제10호에서 '불화사 사자바위' 시로 등단했다.

불교신문 편집국장 직무대행
이성수 불교신문 기자는 6월 7일자로 불교신문 이사장 자승 스님으로부터 편집국장 직무대행에 임명됐다.

“다름은 인정돼야”

새 사무실로 이전한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상임대표 퇴후 스님



“임대 사무실에서 벗어나 새롭게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불교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대표 퇴후)가 두산위브 707호에 새로운 사무실을 마련하고 6월 9일 이전 개소식을 가졌다. 퇴후 스님은 사무실 이전과 함께 더욱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겠다며 각요를 다졌다.

“지난 20여 년 간의 실천승가회 활동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제 성년의 나이에 해당하는 창립 20년이 다 됐

니 더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실천승가회는 수 년 전부터는 종단 중심의 활동을 지양하고, 대북, 성평 등, 인권 등 사회적 현안과 가치실현에 관심을 가져왔다. 동시에 종단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과 감시의 역할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퇴후 스님과 실천승가회는 앞으로 다문화 가정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 스님은 다문화 가정이 우리 사회의 부당이자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을 어떻게 한국 사회에 정착시킬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긍정적 에너지를 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전에는 공찰이 하나뿐입니다. 그만큼 종단의 지도력이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강남 3구에서는 불교 인구가 다른 종교에 비해 3순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최소한 수도권에서는 지금의 본사 구조가 타당하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개선 방안을 연구해야 합니다.”

퇴후 스님은 신도시 및 수도권 포교 활성화를 위해 새로 개발되는 도시에는 종교부지 불화를 통한 접근을

활성화하고, 기존 도시는 불교적 인프라 확충을 통해 이미 활동 중인 사람과의 과열 경쟁을 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종교 부지는 종단이 예산을 통해 확보한 뒤 건물은 개별 사찰이 짓는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능력 있는 젊은 포교인재를 발굴한다면 수도권 포교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퇴후 스님은 “종단이 부지 매입 문제라도 해결해준다면 열성을 갖고 뛰어들 인재들이 많습니다. 역량은 있으나 기반 마련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라며 “그들의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선정, 지원한다면 수도권 포교가 어렵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면밀한 평가 시스템도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고 말했다.

“불교는 사회와의 접촉 통로가 약합니다. 실천승가회는 이런 문제를 고민하면서 종단에 대한 감시와 정책 제안자로서의 역할에 소홀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북문제 또한 실천승가회가 놓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종교·문화적으로 다양성의 가치를 넘어 다름이 인정되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제주 7대경관 선정에 조계종 나서



조계종과 '제주-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범국민추진위원회'는 6월 7일 업무 협약을 맺고 적극적인 협력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약식에서 자승 스님과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운찬 제주-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제주도 최종 선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일봉 존자 열반 제15주기 추모제



세계불교 초대법왕 일봉 존자 탄신 97주년 및 열반 15주기 추모제가 10일 제주 조천체육관에서 봉행됐다. 세계7대 자연경관선정 기원과 결하여 일봉스님 탄생지인 제주도에서 사는 사람들을 보며 오히려 내가 봉사를 통해 삶의 힘을 얻게 된다”며 “비록 작더라도 베푸는 삶이 나의 삶을 더 값지게 만들어 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남은 대화사를 통해 “수행자의 표상을 보여주시는 큰스님의 뜻을 받들어 이웃과 중생을 위해 헌신하여 사부대중의 지표가 되자”고 밝혔다. (재)일봉선교종 총무원장 화엄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불법중생의 선각자이신 큰스님의 뜻을 받들어 화합과 단결하여 유업을 발전시켜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육법공양을 시작으로 진행된 이날 법회에는 (재)일봉선교종 종정 정각 스님, 총무원장 화엄 스님, 전국일봉문도중앙회 회장 의륜 스님, 명예회장 지산 스님, 일봉신문사 사장 동봉 스님, 한화갑 평화민주당 대표, 종도 및 문도회 회원 등 1000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법회에는 (재)일봉선교종 종정 정각 스님, 총무원장 화엄 스님, 전국일봉문도중앙회 회장 의륜 스님, 명예회장 지산 스님, 일봉신문사 사장 동봉 스님, 한화갑 평화민주당 대표, 종도 및 문도회 회원 등 1000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자비 실천 위해 여성들이 뭉쳤다

붓다자비봉사단, 국내외 자비행



“밥을 해서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밥을 해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저희들 역할입니다.” 어려운 이웃과 아픔을 함께 하기 위해 여성 불자들이 뭉쳤다.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산하소속인 붓다자비봉사단(회장 김대천)은 여성분과 회원들로만 구성돼, 1년 전부터 국내외 국

외를 돌며 자비행을 실천해 왔다. 붓다자비봉사단의 김대천 회장은 “국제불교지도자협회에서 활동해 오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자 여성들이 모여 봉사단을 창설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붓다자비봉사단 단원들은 국내에서는 양로원, 고아원, 군부대 교도소 등을 방문하면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처님오신날에도 의정부 교도소를 찾아 재소자들에게 시루떡 7가마, 라면 50박스, 염주와 단주 500개를 기증했으며, 대한불자기수회 회원들을 초청해 교화 공연도 봉행했다. 이밖에도 미얀마 등 어려운 이웃 국가를 찾아 우물파기 운동, 신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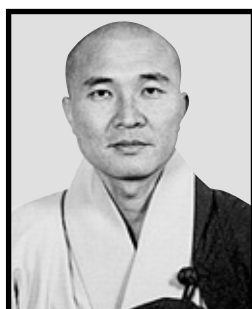
(불교 출가 의식), 초등학교 설립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단원으로 활동 중인 김영춘 씨는 “처음 봉사를 시작할 때에는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고 생각했는데, 가난한 속에서도 행복을 잃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보며 오히려 내가 봉사를 통해 삶의 힘을 얻게 된다”며 “비록 작더라도 베푸는 삶이 나의 삶을 더 값지게 만들어 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대천 회장은 “붓다자비봉사단의 활동은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더욱 많은 활동을 활발히 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아직은 여건이 많이 부족하다. 앞으로 많은 분들이 한마음이 돼 봉사대열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02)733-5670

이은정 기자

<부고> 삼성암 주지 현종 스님 입적



최근 급성 간경화로 투병 중이던 서울 삼성암 주지 현종 스님(사진)이 6월 10일 입적했다. 세수 55세, 법랍 32세. 해인사와 조계사 주지를 지낸 세민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현종 스님은 1975년 8월 30일 청암암에서 지관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85년 9월 26일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1984년 서울 동국대 승가학과를 졸업한 후, 일본 용국대학 대학원에서 문학연구 석사·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2008년 동국대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다. 현종 스님은 2005~2009년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을 맡아 종단의 정체성 확립과 간화선 보급에 이바지했다. 2009년 명상 대중화를 위해 사단법인 명상문화연구원을 설립하고, 2010년 조계종 대학생전반 단장을 맡아 대학생 포교 활성화에도 앞장서 왔다.

세계제일 적중률을 자랑하는 구단구궁법

집중 5일완성
저자: 법화종현(정흥교) 큰스님 직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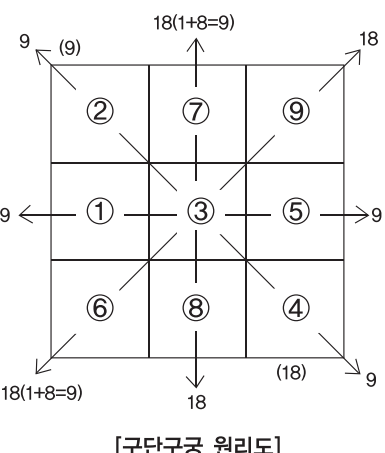


강의
목, 금, 토요일
오후 2시 ~ 5시
상담: 010-7415-0803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궁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공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사찰·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구단구궁으로 짚어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교육이수 후 즉시 영입 가능함.

특전: 등록비 (1,000,000원)
승려증소지자 (50%)

상표등록번호: 40-0863341호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호



*** 강의 일정표 ***

- ◆제1일 - 구단 구궁의 제법칙
◆제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제3일 - 부교재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제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법칙
◆제5일 - 구단구궁 실천감정

※ 구단구궁을 수료하신분들께 감사드리오며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은 일정표에 맞추어서 재수강 하시기 바랍니다.

Table with 4 columns: 학과 (Subject), 기간/요일/시간 (Duration/Day/Time), 강의과목 (Lecture Topics), 비고 (Remarks). Rows include Buddhist Law, Buddhist Geography, Ordination, Buddhist Psychology, Mathematics, Logic, Buddhist Cosmology, and Buddhist Astrology.